

100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특별 기고 - 100세 시대



오윤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100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처럼 가능되지 않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대화속 화두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수명 연장은 옛부터 인간 개인으로서 바랬던 장수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를 수치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때를 위함이었던 듯 등장한 J. Jonasson의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 주인공 알란칼손은 나이가 중요치 않으며, 가장 중요한 가치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기도 하다. 의미있는 이런 주장은 노인의 고집으로 치부되기 쉬운데 100세 시대 하면 청년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먼저 노인을 떠올리고 동시에 몇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 예를 들면, 허약하고 댨사나고 무능력하고 노망이 있는 등의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일축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100세 시대는 노화과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연령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을 중심으로 사회·문화·경제·정치를 포함한 제 측면에서 신사회 시스템 내지 표준기제의 창조를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품고 있는 도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00세 시대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한편, 기능적 연령이나 생애주기에 의한 노인구분이 있기는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이란 역연령(chronological age, 曆年齡)으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는 때론 환갑 또는 정년퇴직을 고려하여 60세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최근 대한노인회 중심으로 70세로 상향하자는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노화, 노령(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www.imagetoday.co.kr)

령)사회, 100세 시대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제 100세 시대는 기대수명(총생 이후 생존하는 평균횟수로서 청년, 아동 등의 사망률이 포함된 경우)보다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을 지정하는 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기고령사회 도래를 예측하게 함으로 사회의 기초가 되며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개인과 가족의 삶은 물론 세대가 다른 사회구성원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우리사회의 압축적 고령화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며 돌이켜보면,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은 선 가정, 후 국가 개입 구도를 유지해 왔으므로 적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부부의 경우, 과거 사회에 비하여 부부생활기간이 장기화될 것이며 기대 이상으로 자동연장된 노년기 생활에서는 배우자, 가족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핵심자원인 사실에는 아직 두드러진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방증으로 OECD의 2030년 가족미래보고서(2008) 역시 오히려 세대 간 유대는 강도와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언급하였다. 반면,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효를

비롯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실천적 수준에서는 세대동거 내지 가족네트워크의 구축력이 약화되어 노부모 부양부담은 가족돌봄이라는 비공식 지원의 총량에서 이미 많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더욱이 고독사예비군으로 불리는 독거노인 및 위기노인은 가족체계에서의 돌봄이나 정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무연사회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구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대부분이 가족돌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의 주요 구성원은 여전히 가족인 사실에 기초해 볼 때 돌봄의 win-win을 위하여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지지, 휴식지원, 상담, 교육, 자조모임 등이 보편화된 서비스로 지원되어야 한다. 동시에 노령세대는 노후부양은 가족의무로 여기고 젊은세대는 개인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가치관 변화를 참고하여 가족돌봄기능의 강점을 강화한 가족의적인 지지체계로 100세 시대 가족돌봄의 보완 및

대안이 될 수 있는 노력이 청장년시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골격있는 노인, 신세대로서의 노인, 인생 이모작, 서로돌봄사업 등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새로마지플랜 2015을 통해서 노후설계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 노후설계상담사, 노인생애경력조언자, 100세누리포털 등의 내용으로 중장년층을 포함한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지킴이 다이얼, 그룹하우스, 프랑스의 청년노인세대동거, 독일의 다세대공동주거, 핀란드의 고령자집합주택 등이 대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0세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WHO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대표사례인 뉴욕시를 살펴보면, 2007년 뉴욕의대와 협력 추진 결과 2010년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의 첫 가입도시가 되었는데 4대 영역 15개 세부영역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장혜경 박사는 고용과 경제적 안정, 자원봉사, 문화 및 여가활동, 정보, 주거,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교통의 접근성, 고령친화적 공공 공간, 건강, 고위험군 노인, 영양, 수발과 장기요양, 완화케어와 죽음준비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그는 법정의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방인인 자신에게 이방인의 권리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방인을 위한 법. 방베니스트의 말대로 환대는 항상 '상호성'을 보장하는 법, '상호적 약정'이었다. 해당 나라의 법이나 관습, 언어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일시적 체류로 한정함으로써 환대를 부여받게 되는 칸트의 조건적 환대는 여기서 멀지 않다. 주인의 언어로 환대가 요청되고 '당신에게 장소를 선물할테니 이 곳이 나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주권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조건적 환대가 행해지자마자 환대는 스스로를 부정하기 시작한다. 환대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이 모두 환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예측불가능한 형태로 도래하는 이름 없는 자를 환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름이나 정체성을 묻는 질문 '이전'에 환대



환대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이 모두 환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 버린다

가 행해져야 하지 않을까? 데리다는 다시 묻는다. 주인과 손님의 구별을 전제하는 상호성의 법이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데리다는 다시 오이디푸스를 불러온다. 왕이라는 의미를 지운, 더 이상 주인이 아닌 '떠돌이 부랑자,' 범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린' 범의 이방인인 오이디푸스가 범의 주인인 테세우스를 이방인이라 부른다. 테세우

스는 오이디푸스를 환대하면 아테네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에 몰도잡혀 있다. 주인(host)은 이미 항상 볼모(hostage)이며 이방인은 주인을 동요시키는 열림인 동시에 그의 구원자이다. '나는 단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리다처럼 주인은 이미 손님의 손님일 뿐이다. 이방인은 무엇보다도 규정불가능한 형태로 도래하는 자이다. 주인과 구별되는 존재였던 이방인은 이제 주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유령으로 되 돌아온다. '오이디푸스라 불리는 불쌍한 유령을 가련히 여겨 주시오.' 환대의 공간에서는 이미 규정된 자 뿐만 아니라 아직 규정되지 않은 자, 규정불가능한 자들의 유령이 출몰한다. 해방자라도 되듯, 마치 구원자인 양 도래할 이방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환대할 때 환대는 절대성을 획득한다. 전지구적 시장 체계 속에서 환대받을 수 없는 이방인으로 남아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환대하라는 명령이 절대적 긴급성을 갖는 곳도 바로 여기이다.

참여마당

이혜진
국제학(2014)



강의수강인원 줄여 토론식 수업 진행해야

2학년 1학기 종강이 20여 일 남은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운 수업들을 되돌아 보았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주입식 교육을 받은 후 대학에 입학하며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대학 수업의 참된 본질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 받는 교육보다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은 모두 최소 40명에서 최대 8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듣는 대형 강의가 대부분이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은 말할 기회를 잃었다. 대학은 학원도, 취업 학교도 아닌 생각을 기르는 곳이다. 배분 이수영역 교양수업인 '정의란 무엇인가'는 8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어렵다. 미리 지정된 학생이 책의 내용을 발표하고 교수님이 이에 대한 첨삭과 함께 설명을 보충해 주신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의 개인 발표를 듣고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세한 의견을 듣기 어렵다. 교수님으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수업도 필요하다. 지식을 배우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어도,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이 '가치'에 대해 배우는 수업은 적극적인 토의 방식의 진행이 필요하다.

아쉬운 점은 '가치'를 배워가는 수업조차 반드시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학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운영하며 신입생들에게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시민 교육 수업을 들을 것을 권장한다. 철학적이고 생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수업들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의 주입식 교육을 받던 신입생들은 자유, 사랑, 행복, 정의, 평등, 공동체, 과학 혁명, 근대, 경제 혁명 등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신입생 시절, 이 수업들을 통해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것을 벗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과 판단의 기회를 얻었고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가치'에 대한 수업의 방식조차 반드시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들었던 1학기 교수님은 주로 교재에 대한 설명 위주의 수업을 하신 반면에 2학기 교수님은 개념에 대한 설명,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위주의 수업을 하셨다. 관련된 키워드와 책에 있는 고전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 또한 새로운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이었다. 교재에 실린 글, 문제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2학기에 무작위로 편성된 조에서 나이도, 학과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학생들과 개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한 토의를 하며 편견과 선입견을 깰 수 있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었다. 대형 강의를 축소함으로써 토론식, 토의식 수업이 자리 잡고 대학 수업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15년 재학생 모교방문단 모집

모교방문단 활동을 통하여 은사님과 후배들도 만나고 우리 대학을 홍보할 뜻 깊은 활동에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경희대학교 재학생 누구나

▶ 활동내용 : 경희대학교 홍보 및 2016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 신청기간 : 2015.6.15.(월) ~ 22(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입학처 홈페이지)

▶ 활동기간 : 2015. 7. 3(금) ~ 9.5(토) 자유롭게 선택

▶ 선발자발표 : 2015. 6. 25(목),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 교육일정 : 서울C - 2015. 6. 29(월), 30(화) 15:00~16:00 예정
국제C - 2015. 6. 30(화), 7.1(수) 15:00~16:00 예정
※ 선발자에 한하여 사전교육 실시, 교육불참자는 모교방문단원에서 제외됨

▶ 특전 : 활동비지급, 우수보고서 제출자 포상, 사회봉사시간 8시간 인정

▶ 문의 : 입학처 (서울C 02.961.0028/ 국제C 031.201.3300)

경희대학교 입학처